

탄원서

사건번호: 2026노331

피고인 : 김건희

탄원인 :

주소:

연락처: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피고인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자 이 탄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던 알선수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공론화 된 사안이었고, 명풍 가방으로 UN 제5사무국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통상적 선물이라는 점에서 거부했었지만 받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 청탁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1심의 사실 관계 오인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대가성이 아닌 선물로 주었을 뿐이고 가격 또한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를 부적절하게 여겨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후에 그래프 귀걸이 또한 선물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이라고 말하는 혐의의 행태를 보면 분명 여사님이 주식을 많이 사라고 했기에 시세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구입했을 뿐입니다. 이는 주식을 금액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채워야 할 때 일시적으로 구매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다 일어난 우연의 일치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선거 여론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일 뿐더러 이 결과를 보내준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계약서도 없기에 설문조사를 제공해주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후보자'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는 계약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확인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님은 지금 심각한 저체중과 걷기도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 있고, 불안증이 있기에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어 선처를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판사님께서 공정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시길 기대합니다.

날짜: 2026. . .

탄원인 : (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 15-2부

부장판사 원익선 귀중

우편번호: 06594

-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가급적 빠른 등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